

고흥군 “새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본격 구축”

공영민 군수, 새해 첫날 현장 점검 우주센터 인근 171만㎡ 규모 조성 발사체 기업들과 속속 투자협약

고흥군이 2024년 우주발사체 산업을 기반으로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할 준비를 갖췄다.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가 새해 첫날인 1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대상지들을 찾는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고 군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우주산업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2031년까지 약 1조 6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이어 지난해 3월 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역 성장동력과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를 보냈다.



공영민(왼쪽 두번째) 고흥군수가 새해 첫날인 1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사업지를 찾아가 점검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800억원을 투입해 171만 6000㎡(5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이다.

군은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과의 투자협약도 꾸준히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발사체 선도 기업

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발사체 제조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설명회에서 이노스페이스 등 발사체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국토부, 사업시행자 간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한국우주기술훈영회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 순천대와 융합캠퍼스 유

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끌어냈다.

지난해 8월 ‘민간 전용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약 2400억원의 예산확보로 올해에 인프라 설계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용 발사장이 구축되면 국내 우주 관련 사업의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이 열릴 전망이다.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인증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국비 5억원을 들여 우주과학 교육·체험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캠퍼스’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콘셉트 발굴을 본격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 갑진년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의 본격 구축과 더불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고흥군이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 제철산업 입주 규제 풀려 2차전지 등 신산업 유치 가능

올해부터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부지에 제철 관련 산업 외에도 신산업 분야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투자유치 활성화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정 목적 변경과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다.

광양제철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를 마련하고 슬래그(광석 제련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30만평(760만3305㎡) 중 135만평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95만평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와 수소생산 등 신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해당 터에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신산업분야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지난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에는 중앙연안심의회를 완료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았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았다.

지난 28일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최종 고시가 됨으로써 동호안에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해소와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올해부터 동호안 부지는 투자유치와 공장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광양시 측은 기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우리 밀 싹 밟기’

구례군이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우리 밀 싹 밟기’ 행사를 진행한다.

구례군과 넷지헬스케어는 건강관리 모바일 앱 ‘캐시워크’에서 우리 밀 싹 밟기 챌린지 행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농부들이 밀이 잘 자라도록 밭 새싹을 꼭꼭 밟았던 전통에 착안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하루 6000보를 걸으면 최대 1만점(캐시)을 받을 수 있다.

누적 3만보를 달성하는 선착순 5만명에게는 우리 밀 선물 20% 할인권도 지급된다.

구례군은 지난 1991년 지역 특산물인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수요량은 약 223만t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은 1만5000t으로, 밀 자급률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자급률 1.8%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평일 밤 11시까지 진료 출산지원금 첫째 500만원·둘째 1000만원

여주시 새해 달라지는 74개 사업

여주시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6개 분야 74개 사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시책은 ▲일자리·경제 분야(6개) ▲관광·문화·교육 분야(10개) ▲보건·복지·여성 분야(23개) ▲농림·수산 분야(16개) ▲환경·건설·교통 분야(11개) ▲일반 행정·세계·기타 분야(8개) 등 총 6개 분야 74개 사업이다.

우선 전남 최초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으로 여수중앙병원이 운영됨에 따라 평일 밤 11시, 주말(토·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으로 올린다.

‘여수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1회당 20만~1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지원’(임대보증금 제공)이 적용된다. 나진초(용장분교)에는 ‘여주시 공공형 실

내놀이터’가 조성돼, 누구나 놀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월 20회 한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행정 인턴 사업은 기존 대학생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청년 여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자격시험’까지 적용한다.

여수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지류형 7%, 카드형 10%’로 상향 조정된다. ‘모바일형’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귀농인 이사 비용’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어구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주시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시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농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농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마무리

2022년부터 수료생 53명 배출

순천농협과 순천 성화로타리클럽은 지난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순천농협은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1월15일부터 8차례에 걸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펼쳤다.

지난 2022년부터 순천농협과 순천 성화로타리클럽은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 직업교육을 벌이

고 있으며, 총 5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순천농협은 일대일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자격 취득과정 직업교육 등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여성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성화로타리클럽 회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특히 교육 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